

# 日本工業規格「情報交換用漢字符號-補助漢字」에 포함된 日本漢字에 대한 연구\*

李 春 澤\*\*

## < 목 차 >

- I. 緒 言
- II. 日本字의 定義 및 由來
- III. JIS의 「情報交換用漢字符號-補助漢字」에 포함된 日本字
- IV. 結 言

## I. 緒 言

漢字는 中國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후 東아시아로 확산되어 이른바 漢字文化圈을 형성하였고, 특히 2천여년 동안 韓國과 日本의 文字生活을 지배하여 왔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한글과 假名라고 하는 독특한 音標文字를 國字로서 가지고 있고, 양국 모두 근세 이래 지금까지 漢字廢止論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文字生活의 중요한 부분을 占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컴퓨터의 漢字處理가 가능해지고, 일시의 한자폐지에서 오는 문자생활의 불합리성 때문에 오히려 한자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漢字教育이 강화되는 인상마저도 없지 않다. 그예로써 한국에서는 한글전용의 거센바람 때문에 학교에서 한자교육을 폐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1972년부터 다시 부활되어 中高等學校에 韓文의 獨立教科目을 설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 일본에서도 當用漢字에서 常

\* 이 논문은 1991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차유공모(지방대학육성)과 세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도서관교육과 부교수

用漢字로 移行한것은 그러한 감을 강하게 품고 있다<sup>1)</sup>. 그리고 한글 전용이 민족주체성회복이라고 한자를 완전히 폐지한 것으로 알려진은 北韓에서도 한자성 단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저하로 지금은 基本漢字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컴퓨터의 발달로 불가능 하리라고 여져지던 한자처리가 가능해지면서 한자문화권의 각국은 國家標準規格의 漢字코드를 만들어 自國民의 문자생활의 한 기준이 되게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의 컴퓨터의 이용은 MARC의 보급 교환 및 도서관 네트워크등 도서관업무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반면에 각국의 독자적인 漢字코드의 제정 및 사용은 모든 것이 국제화된 상황에서 정보의 국제적 유통과 多言語多文字 자료의 처리 및 이들을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등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의 교류가 빈번한 韓日 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각국의 固有文字와 함께 漢字라고 하는 공통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정보의 교환에 있어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漢字의 字數字種 및 配列方法이 서로 달라서 적어도 컴퓨터를 통한 정보교환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를 비롯한 모든 학문적 정보의 공유 및 국제적 유통등을 위해서는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제정, 사용되고 있는 한자코드를 통합하여 一元化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진작부터 제기되어 왔다.

차제에 國際標準化機構에서 제정한 「國際統合漢字코드」의 출현은 정보의 국제적 유통은 물론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등 모든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漢字가 國際文字라고는 하지만 오랜 기간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상호간에 의미가 통하지 않

1) 李春澤, Computer코드화를 위한 韓國工業規格과 日本工業規格의 基本漢字에 대한 비교연구, 濟浪鄭필護博士華甲紀念論文集. 서울 : 同論文集編纂委員會, 1990. p.526

게된 字들이 적지 않게 되었다. 그 중에는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造字한 이른바 國字, 俗字, 異體字, 簡體字등이 있고, 또한 동일한 한자라 하더라도 의미가 달라진 字등이 있어서 간단히 共通文字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漢字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게된 현재에 있어서 한자로 기록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이것이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원만한 字典에는 수록조차 되어 있지 않아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필자는 日本에서 한자사용의 한 기준이 되고 있는 日本工業規格「情報交換用漢字符號」, JIS X 0208에 포함되어 있는 日本字들을 조사 분석하여 발표<sup>2)</sup>한 바 있다. 본고는 이의 후속연구로 역시 日本에서 한자사용의 한 기준이 되고 있는 日本工業規格「情報交換用漢字符號-補助漢字」, JIS X 0212-1990<sup>3)</sup>에 포함되어 있는 日本한자들을 조사분석하고 국내외의 字典을 참고하여 그 한자가 형성된 과정과 의미를 파악하고 그 용도를 밝히므로써 日本語로된 情報資料의 정확한 이해는 물론 韓日間 書誌情報의 交換 및 漢字處理의 效用性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2. 日本字의 定義 및 由來

여기에서 日本字라고 하는 것은 日本의 입장에서 和字(倭字), 和俗字, 本邦製作字, 和製漢字등으로 말해지는 것으로 보통 國字라고 불리워진다. 이는 新井白石(1659-1725, 朱子學者)가 「同文通考」에서 '國字라는 것은 本朝에서 만들어져 異朝의 字書에는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訓만 있고, 그 음은 없다'(卷之四, 凡例)고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字形 그것은 漢字에서 배워서 日本에서 새롭게 만들어 쓴 이른바 漢字를 모방하여 만든 文字이다. 國字는 본래 中國에는 없는 物名이나 概念을 漢字로 표현하려는 意圖로 탄생한 것으로 그 造字는

2) 李春澤, 日本工業規格「情報交換用漢字符號」에 포함된 日本漢字에 대한 연구, 圖書館學, 서울: 韓國文獻情報學會, 1992, pp.219-253.

3) 日本規格協會, 情報交換用漢字符號-補助漢字(JIS X 0212-1990), 東京: 日本規格協會, 平成2年(1990)

#### 4 圖書館學論集

會意로 이루어진것이 대부분이며 訓만 있고 음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國字라는 概念은 때로는 「國字問題」라든가 「國字改革」등 一國의 公式文字로서 정해져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고있는 文字, 日本의 경우에는 漢字와 假名이지만 특히 狹義로는 漢字에 대해서 假名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單語이다<sup>4)</sup>. 「大漢和辭典」<sup>5)</sup>에 의하면 日本字는 '그 由來하는바가 심히 오래된 것도 있고 또는, 謄書로부터 유포되어 또다른 字體를 만든 것도 있어 대체로 4種으로 나뉘어 진다.

첫째는 漢字를 본떠서 새로운 字體를 만든 것으로 이들은 대개 會意로 형성된 것으로서 訓만 있고 음이 없다. 이것이 倭字의 特質이다.

둘째는 漢字에 그 體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그 뜻을 정한 것으로 이에는 두종류가 있다. 하나는 漢字의 原義와는 다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漢字音은 있으나 그 뜻이 未詳인 것인데, 이들은 漢字에 그 體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만든 것과, 그 體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별도의 뜻을 정한것이라고 생각된다.

세째는 어떤사물의 성질에 기초하여 原字의 일부를 개작하여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이중에서 둘째는 日本 國訓字 및 國音字로 순수한 日本字로 分類할 수 있는 것은 첫째와 세째이다.

그러면 어느 字가 日本측 입장에서 國字로 고려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字數는 어느 정도일까? 그것을 정확히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江戸時代 이래 國字에 대해서 學者들간에 연구가 행해져 오고 있으나 아직 認定을 위한 手續이나 定義조차도 정확하게 내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國字를 集錄한 最古의 것으로 僧昌住(傳未詳)가 著述한 漢和字書 「新撰字鏡」(昌泰年間. 898-901 成立)의 小學篇字所收에 수록된 400여자를 들수 있으나 이는 충분한 檢證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國字에 대한 檢證의 자세가 구체적으로 인

4) 坂詰力治. 國字, 漢字と日本語(漢字講座 ; 3). 東京 : 明治書院, 昭和62. p.254.

5) 諸橋轍次 著. 大漢和辭典. 修訂版. 東京 : 大修館書店, 昭和59年. 卷2, p.975.

정된듯한 것은 예를들면 天正 18(1590)年本「節用集」(實用的辭書)에 보이는 「當·辻」같은 註記로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檢證의 자세가 정비된 형태로 표시된 것은 和算家 中根元珪(1662-1733)가 저술한 「異體字弁」(元祿 5. 1692년 貝原篤信序)의 卷末에 和俗字로서 상정한 89字의 日本字였다.

또한 「異體字弁」에 序를 썼던 貝原益軒(本名 篤信 1630-1714, 儒者)도 「續和漢名數」(元祿 八 1695年刊)를 著述 第八 '文籍'에 倭俗制字로서 26字를 들어 國字에의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國字에 대해서 檢證한 가장 一般的이고 中心的인 것은 新井白石의 「同文通考」와 伴直方の 「國字考」, 그리고 岡本保孝의 「倭字攷」이다.

「同文通考」는 卷四에서 國字에 대한 定義를 내리고 部首順으로 76項 81字의 國字을 상정 그 의미는 물론 字源까지도 註解하고 있다. 「同文通考」는 「倭名鈔」(源順撰. 承平年間 931-938 成立), 漢語抄(佚書), 說文(許慎)등의 文獻을 典據로 하고 있으나 註解에서는 出典을 일일이 명기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伴直方の 「國字考」에 있어서는 119字의 國字를 七部門(天地部, 人倫部, 衣食部, 器財部, 草木部, 鳥漁部, 言語部)으로 分類 列舉하고 있다. 이중 「同文通考」에서는 國字로서 취급하지 않았고 「國字考」에만 상정된 것은 44字였다. 「國字考」의 註解는 「同文通考」보다 훨씬 많아 古今의 字書(辭書)나 啓蒙書類를 引用하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그외에도 直方 자신의 생각을 述하고 있다.

岡本保孝의 「倭字攷」는 168字의 國字를 部首別로 列舉하고 있다. 이중 「同文通考」나 「國字考」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倭字攷」에만 수록되어 있는것은 118字이다. 그러나 이것은 國訓字까지를 포함한 것이었다. 本書는 標題字의 字義字源은 물론 片假名訓의 語源등을 해석하고 있으며 文獻의 인용에는 그 文獻의 卷數, 丁數, 表裏등을 표시하였고 他說의 경우에는 自說과의 구별을 확실히 명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倭字攷」의 註解 態度는 伴直方の 「國字考」에서 본마와 마찬가지로 客觀的이고 學問的인 것이었으며 註解의 說明 部分에 인용된 文獻만도 대략 100

種이 넘는 것이었다.

이상은 江戸時代까지에 있어서 國字을 수록한 文獻으로 「同文通考」, 「國字考」, 「倭字攷」를 중심으로 보아왔다. 다음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辭書로서 國字를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 諸橋轍次著의 「大漢和辭典」에서 國字로 표시되어있는 것을 발췌해보면 141字이다. 이 141字 가운데에는 「同文通考」 卷四 「國字」에 등재되어있는 文字와, 「國字考」에서 國字로서 취급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兩書에서 國字로 취급한 文字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國字考」에 있어서 國字로서 취급한 것과 겹치는 것은 극히 적다. 또한 兩書에서 國字로 취급한 文字 가운데에도 「大漢和辭典」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것도 있으며 등재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文字가 國字로 취급되지 않은 것도 있다<sup>6)</sup>.

### 3. JIS의 「情報交換用漢字符號-補助漢字」에 포함된 日本字

JIS X 0208-1990에 수록된 漢字중 日本國義字를 제외한 日本字에 대한 考察에 이어 JIS X 0212-1990. 「情報交換用漢字符號-補助漢字」에 포함된 日本字에 대해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日本字는 上述한 바와같이 그 由來가 심히 오래된 것도 있고, 또한 여러 文獻에 散在해 있으며 日本字의 인정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아 그 추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本考에서 日本字라 한 것은 「大漢和辭典」이나 「最新JIS漢字辭典」<sup>7)</sup>, 「大字典」<sup>8)</sup>등에서 國字로 인정한 것을 根據로 하여 추출한 것이며 이에 대한 해설은 日語版으로는 「大漢和辭典」과 「漢和辭典」<sup>9)</sup>, 「最新JIS漢字辭典」, 「廣辭林」<sup>10)</sup>, 「國字の字典」<sup>11)</sup>, 「國語辭典」<sup>12)</sup>을

6) 이 부분은 坂詰力治의 「國字」(漢字と日本語. 東京: 明治書院, 昭和 62. pp. 254-264)를 주로 참고 하였음.

7) 田嶋一夫 監修. 最新JIS漢字辭典. 東京: 講談社, 1990.

8) 上田万年 等著. 大字典. 東京: 講談社, 1965.

9) 赤塚 忠; 阿部吉雄 編. 漢和辭典. 改訂新版. 東京: 旺文社, 1986.

10) 廣辭林. 三省堂編輯局 編. 第5版. 東京: 三省堂, 1980.

11) 菅原義三 編. 國字の字典. 東京: 東京堂, 平成 2年(1990)

12) 西尾實, 岩淵悅太郎, 水谷靜夫 編. 國語辭典. 第4版. 東京: 岩波書店, 1986.

참고하였고 국내서로는 「日韓大辭典」<sup>13)</sup>과 「엣센스日韓辭典」<sup>14)</sup> 등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아울러 國內字典類로써는 「新字典」(崔南善)이 말미에 日本俗字部를 두어 98字의 日本字를 수록하였는데 음은 없이 뜻만을 수록하였고, 이후의 字典들이 이를 臺本으로 하여 편찬되었기 때문에 「新字典」의 수록여부를 밝혔고, 「大字源」<sup>15)</sup> 및 「漢韓大字典」<sup>16)</sup> 은 국내사전 중에는 비교적 최근에 발행된 것으로 가장 많은 日本字를 수록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그들의 수록여부를 밝혔다. 단 이들 字典에 수록된 음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음은 아니다. 日本字의 특질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訓만 있고 음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字典들에 실려있는 日本字는 모두 음을 가지고 있다. 일본자를 맨처음 자전에 수록한 것은 池錫永의 「字典釋要」<sup>17)</sup> 라고 생각되는데 日本字등 字典不載字들은 諧聲法에 의거하여 음을 달았다 하였다. 「新字典」을 제외하면 이후 발행된 사전들의 음은 여기에 기원을 둔것으로 생각되나 어디까지나 類推에 의한 것이며 간혹 자전에 따라 음이 다른것은 이 때문이다.

ㄱ(16-17)<sup>18)</sup> : 음은 없고 訓은 ‘しめ’이다. 첫째는 습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습計’를 뜻하고, 둘째는 接尾語의으로, 주로 순 일본말의 數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서 半紙의 장수를 세는 말로 쓰이며(ひとしめ는 2000枚), ‘다발’(束)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로 편지등을 봉한 자리에 하는 기록으로의 ‘ㄱ’는 ‘緘’標를 의미한다.

또한 ‘爲’字의 省劃草書로 ‘して’로 訓하기도 한다. 국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13) 柳 呈 監修. 日韓大辭典. 서울 : 韓英出版社, 1978.

14) 安田 吉實, 孫洛範 共編. 엣센스日韓辭典. 서울 : 民衆書林, 1987.

15) 張三植 著. 大字原. 서울 : 三省出版社, 1990.

16) 金赫濟, 金星元 編著 ; 車柱環, 張基權, 金學柱 監修. 漢韓大字典. 서울 : 明文堂, 1984

17) 池錫永. 字典釋要. [漢陽] : 匯東書館, 1909년. 1976년 아세아문화사 영인.

18) 이 숫자는 「JIS情報交換用漢字符號-補助漢字」의 圓形文字符號表에 나타나 있는 區와 点의 番號이다.

(23-68) : 音은 없고 訓은 ‘ぬかり’이다. 地名漢字로 福島縣 東白川郡 矢祭町 大字라는 곳에 ‘大’ (おおぬかり)라는 地名이 있다. 그 지방 사람들에 의하면 그 곳이 대단히 질퍽거렸기(ぬかる)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였었다고 하나 지금은 그 정도의 濕地는 아니라고 한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28-20) : 音은 없고 訓은 ‘たづな’ 또는 ‘たづな’로 歌舞伎중 ‘諸 奥州’ (もろたづなおうしゅうぐろ)란 말에서 쓰인 예가 있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28-84) : 音은 없고 訓은 ‘なぎ’이다. JIS(X 0212, P.71, 註 12)는 地名이라 하였으나 다른 것들과는 달리 그 用例를 밝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명확하지 않고 「難讀奇姓辭典」에 ‘草’ (くさなぎ)가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姓氏로 쓰였던 字가 아닌가 생각된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健(29-18) : 音은 ‘ケン’이고 訓은 ‘たけし’이다. ‘健’(JIS X 0208, 28-32)의 日本式 俗字 또는 訛字라고 한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扒(31-28) : 音은 없고 訓은 ‘はめる’ 또는 ‘しぼる’라 한다. ‘はめる’는 ‘끼우다’, ‘끼다’ 등으로 쓰이며 ‘しぼる’는 ‘(쥐어)짜다’, ‘조르다’ 등의 뜻이다. 「大字源」(張三植)에 日字로서 ‘끼울입’ (挾也)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明文堂)에는 日字로서 ‘끼울입’ (嵌也), ‘조를입’ (絞也)라 하였다.

撈(31-67) : 音은 없고 訓은 ‘むしる’이다. ‘잡아 뽑다’, ‘쥐어 뜯다’, ‘(생선 따위의 뼈에서)살을 발라내다’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大字源」에 日字로서 ‘뜯을릴’ (裂也)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썰어버릴릴’ (除也), ‘김멜릴’ (拔去田草)이라 하였다.

杈(35-01) : 音은 없고 訓은 ‘すき’이다. ‘杈原’ 등 地名에 쓰인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栳(35-63) : 音은 없고 訓은 'かせい'로 첫째는 (물레질한 실을 감는 工字 모양의) '실패'를 뜻하며 둘째는 '수건걸이'를 뜻하기도 한다. 「新字典」(崔南善)에 日訓이 'カセヒ, カセギ, カヤ'으로 '물레가락'이라 하였다. 「大字源」 및 「漢韓大字典」에 日字로서 '물레가락상(織具)'이라 하였다.

櫛(35-90) : '木'과 '佛'의 合字로 音은 없고 訓은 'しきみ'이다. 'しきみ'는 山中에 自生하는 常綠 有毒性 灌木으로 芳香이 있어 枝葉을 佛前에 올리고 기도하는 多香木이다. '櫛'로도 표기되며 韓國名은 '붓순나무'이다. 「新字典」에 日訓 'シキミ'로 '佛供香木'(用櫛爲之)라 하였다. 「大字源」에 日字로서 '향나무불(佛供香木)'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도 '향나무불'(灌木, 供佛前, 多香木)이라 하였으나 엄격히 말하면 '향나무'와 '붓순나무'는 別種이다.

枏(36-52) : '木'과 '香'의 合字로 音은 없고 訓은 'かつら'이다. 계수나무(桂)를 뜻한다. 「大字源」 및 「漢韓大字典」에 日字로서 '계수나무향(桂也)'이라 하였다.

楸(36-53) : 音은 없고 訓은 'こまい'이다. 'こまい'는 처마의 서까래 끝에 걸치는 가늘고 긴 나무로 '평고대'(平高臺)를 의미하며 '벽의 윗가지로 쓰는 대(竹)'를 뜻하기도 한다. '木舞' 또는 '小舞'로 표기되기도 한다. 또한 地名으로도 쓰여 靑森縣 下北郡 川内村에 '楸木'(しなのき)라는 곳이 있다. 'しなのき'는 보통은 '科木'으로 쓰지만 이 경우 '楸'는 '品'과 '木'의 合字이기 때문에 'しな'라고 읽혔다는 것이다. 「新字典」에 日訓 'コマヒ'로 '외자시'(壁치는데 쓰는)라 하였다. 「大字源」에 日字로서 '외가지품'(土壁中編木)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외가지품'(壁中編木), '산자품'(屋上及中入細竹類)이라 하였다.

檜(36-93) : 音은 없고 訓은 'たら'이다. 「難讀奇姓辭典」에 '檜澤'(たらざわ)

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奇姓에 쓰였던 字인듯 하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櫛(37-21) : 音은 없고 訓은 'ぬで'이다. 地名漢字로 '櫛島'(ぬでしま)는 上野國의 地名이다. 현재 郡馬縣 前橋市에 '櫛島町'(ぬでしまちょう)가 있는데 그 지방에서는 豊城入彦命이 東征당할때 'ぬるでの木'를 지휘봉으로 군대를 지휘하여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ぬるで'에 '勝軍木'이라는 文字를 붙였다 한다. 그로 인해 이곳을 '勝軍木(ぬるで)島'라고 불렀으나 이를 줄여서 '櫛島(ぬでしま)'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국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櫛(37-53) : 音은 'セン'이고 訓은 'たも'이다. 用例로서 '櫛山'(たもやま)가 있는데 JIS(X 0212 P.71, 註 19)에는 地名이라 하였으나 어디에 있는 지명인지 밝히지를 않았고 동일한 용례가 「難讀奇姓辭典」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전에 姓氏로 쓰였던 字가 아닌가 한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擗(38-30) : 音은 없고 訓은 'むしる'이다. 뜻은 같은 日字인 '耄'(JIS X 0208, 61-59)와 동일하다. 국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溥(40-78) : JIS(X 0212 P.71, 註 21)는 '澳'(JIS X 0208, 63-20)의 異體字라 하였으나 日本國字로 '澳의 誤字'라고도 한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溙(41-07) : 音은 없고 訓은 'ほく'이다. '溙東'(ほくとう)라는 용례가 있는데 '溙'는 墨田川의 뜻으로 江戸時代 林述齋의 作字라고 한다. 지금의 東京都 墨田區 一帶 즉 隅田川 中流 東岸의 雅稱인데 永井荷風の 小説 '溙東綺譚'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颯(44-92) : 音은 없고 訓은 'さらけ'로 '밑이 얇은 항아리'(淺甕)을 뜻한다. 국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穰(49-40) : 音은 없고 訓은 'さい'이다. 地名漢字로 岡山市에 '穰東町'(さいひがしちょう)가 있다. 岡山市의 '穰'(さい)와 본래 上道郡 宇野村 大字穰(さい)를 말하는데 慶長 十年의 「備前國高物成帳」에는 上道郡 宇治郷 가운데 在所村이 있고, 「東備郡村誌」에는 宇治郷 가운데 '財村'도 나와 있다. 이 곳은 戰國時代에 龍口山城主였던 穰所(さいしょ)元常의 出身地라고 전해지며, 地名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莠(50-03) : 音은 없고 訓은 'そうけ'이다. '竹'과 '皿'의 合字로서 地名漢字로 쓰여 富山縣 婦負郡 八尾町에 '莠山(そうけやま)가 있다. '莠'(そうけ)는 본래 이 지방에서는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半圓形의 그릇을 뜻하였으나, 우연히 이곳의 地形이 'そうけ'를 엮어 놓은 듯한 畑地(밭이 돼 있는 땅)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 한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蓀(50-77) : 音은 없고 訓은 'はた'이다. '旗'의 日本式 俗字인 '蓀'(JIS X 0208, 68-57)의 異體字이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蓀(51-01) : 音은 없고 訓은 'しんし'이다. '세탁물을 널때나 염색 할 때, 직물의 폭을 활짝펴서 오무라들지 않게하는 대나무 바늘'로 '쇠활'을 의미한다. 국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幌(52-40) : 音은 'コウ'이고 訓은 'ほろ'이다. '幌'(JIS X 0208, 43-58)의 일본식 異體字이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糠(53-17) : 音은 'ヨウ' 이고 訓은 'やしなう'로 '養'(JIS X 0208, 45-60)의 일본식 異體字이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股(54-20) : 音은 'コ' 이고 訓은 'また'로 '股'(JIS X 0208, 24-52)의 일본식 異體字이다. 국내사전은 물론 「대한화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澁(55-07) : JIS (X 0212, P.71, 주 29)에는 'よふね'라 읽고 용례로서 '三十石 始'를 예로 들었으나 그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다. 또한 寛政 12年 正月에 初演했던 歌舞伎脚本에 '花 淀川語'(はないかだよどがわばなし)라는 것을 용례로 그 訓을 'いかだ'라 한곳도 있으나 그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莖(55-46) : 音은 없고 'すさ' 또는 'つた'라 訓한다. '壁土에 섞는 여물'을 뜻한다. 국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菵(56-43) : 音은 없고 訓은 'くたびれる'이다. '일하거나 또는 걸어서 피로한 것'을 뜻한다. 草枕(くさまくら)는 풀(草)을 묶어서 베개(枕)로 하여 野宿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艸'(くさ)와 '枕'을 合字하여 'くたびれ'로 읽혔다 한다. 「新字典」에 日訓 'クタビル'로 '지치다', '갓브다'라 하였고 「大宇源」 및 「漢韓大字典」에도 日字로서 '가빨침', '지칠침'(疲也)으로 수록되어 있다.

藁(56-73) : 音은 없고 訓은 'すくも'이다. 쪽(藍)의 잎을 醱酵시켜서 제조한 染料를 뜻한다. 국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菟(57-01) : 音이 'ハイ'로 姓氏로 쓰이는 字이다. 용례로 '菟島'(はいじま)가 있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糞(57-31) : 音은 없고 訓은 'すのこ'로 '糞'(JIS X 0208, 68-39)의 일본식 異體字이다. '糞'의 誤字 또는 俗字라 한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穉(57-84) :訓은 없고 음은 '니'이다. 地名漢字로 新潟縣 小千谷市 大字에 '穉生'(ひう)라는 곳이 있다. JIS(X 0212, P. 71)의 註(32)에 의하면 'ひえ'로 읽는다 하였으나 市の 正式文書에는 'ひう'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ひよ'로 발음하고 있다 한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菴(58-09) : 'はぎ'로 읽는다. JIS(X 0212, P.71)의 註(33)에 의하면 '伽羅先代菴'를 예로 들었으나 그 의미는 알 수 없다. 다만 「姓氏由來事典」에 '菴'(はぎ)라는 姓氏가 있는 것으로 보아 古代에 姓氏로 쓰였던 字가 아닌가 생각된다. 국내사전은 물론 「대한화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螻(59-42) : 같은 日本字인 '姥'(JIS X 0208, 73-66)의 異體字이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蟪(59-54) : 음은 없고 訓은 'だに'이다. 蜘蛛類에 속하는 일종의 小蟲을 의미한다. 국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襞(60-63) : 음은 없고 訓은 'えな'이다. 胎兒를 싸고 있는 膜 및 胎盤 臍帶 등의 總稱이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褙(60-77) : 음은 없고 訓은 'ちはや'이다. 첫째는 '巫女가 입는 옷'을 의미하고 둘째는 '和服의 몸통에 꿰매어 단 어떤 끈'이란 의미로 이는 보통 어린이의 옷에 붙인다. 셋째는 '연극등에서 사용하는 衣裳의 名稱'으로 쓰인다. 「新字典」에 日訓 'チハヤ'로 '멜빵, 무당의옷, 神服, 의대'라 하였고 「大字源」 및 「漢韓大字典」에도 日字로서 '옷끈필(褙也)', '무당의 옷필(神服)', '의대필(衣帶)'이라 하였다.

詭(61-92) : 음은 없고 訓은 'やくし'이다. 뜻은 '優'와 같다. 국내사전은 물론 「대한화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𣎵(64-47) : 音은 없고 訓은 'せがれ'이다. '身'과 '分'의 合字로 자기의 分身이란 뜻을 의미한다. '자기 아들의 謙稱'으로 쓰이며 '연소자를 낮추어 하는 말'로도 쓰인다.『新字典』에 日訓 'ヤガシ'(筆者註: 야는 せ의 誤記인듯 함)로 '내자식, 젊은놈'이라 하였다. 『大字源』에 日字로서 '자식분(我子謙稱)'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내자식분'(子息, 對他人自子之謙稱), '젊은놈분'(年少者嘲弄之稱)이라 하였다.

𣎵(64-49) : 音은 없고 訓은 'ねらう', 'しのぶ'이다. 본래는 기회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엿보다', '참다', '견디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新字典』에 日訓 'ネラフ'로 '엿본다, 줄목본다'라 하였고 『大字源』에 및 『漢韓大字典』에도 日字로서 '엿볼인', '줄곧볼인(凝視)'이라 하였다.

𣎵(64-51) : 音은 없고 訓은 'うつけ'이다. 사람을 꾸짖는 말로 '명칭함', 또는 '속이 비어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국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𣎵(66-13) : '郎'(JIS X 0208, 47-26)의 日本式 異體字이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字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𣎵(66-59) : 音은 없고 訓은 'さけのもと'로 '누룩'을 의미한다. 국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𣎵(67-44) : 音은 없고 訓은 'はばき'로 '金祖'(JIS X 0212, 69-26)과 同字이다. 『新字典』에 日訓 'ハバキ'로 '칼마구리'라 하였다. 현재의 국내사전중에는 『漢韓大字典』에 日字로서 '칼마구리원'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𣎵(68-09) : '金'과 연결된 '糸'의 合字로 音은 없고 訓은 'かすがい'이다. 같은 日本字인 '鍔'과 동일한 뜻으로 '결쇠', '격쇠'등을 의미한다. 『新字典』에 日訓 'カスガヒ'로 '거멸못'이라 하였다. 『大字源』에 日字로 '격쇠사'(接針)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거멸못사’ 또는 ‘걱쇠사’(兩脚釘, 日本字與鏝同訓)라 하였다.

鋏(69-26) : 音은 없고 訓은 ‘はばき’이다. ‘칼이나 창따위의 날밀의 상하에 끼워서 刀身이 빠지지 않도록 날밀을 죄는 쇠붙이’란 뜻이다. 「新字典」에 ‘銃同’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 ‘칼마구리조’(銃同)라 하였다.

鷺(71-16) : ‘鶴’(JIS X 0208, 36-65)의 異體字이다. 「難讀奇姓事典」에 ‘鷺見’(つるみ)가 있는 것으로 보아 姓氏로 쓰이는 字인 듯하다. 國內자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𩺰(74-13) : 音은 없고 訓은 ‘えり’이다. ‘바닷가나 강 호수 등에서 물고기를 잡는 장치’를 말한다. 대발을 물고기 통로에 소용돌이 꼴 迷路型으로 쳐놓아, 물고기가 들어가는는 쉽고 나오기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新字典」에 日訓 ‘コリ’(筆者註 : ‘コ’는 ‘エ’의 誤記인듯 함)로 ‘썩이, 물고기발, 통발’이라 하였고, 「大字典」 및 「漢韓大字典」에 日字로서 모두 ‘통발입 또는 썩이입’(捕魚制具)이라 하였다.

鮪(74-47) : 音은 없고 訓은 ‘なます’이다. 같은 日本字인 ‘鮪’(JIS X 0208, 82-48)과 同字로 ‘메기’를 가리킨다. 「新字典」에 日訓 ‘ナマツ’로 ‘메기’라 하였고 「大字典」 및 「漢韓大字典」에도 日字로 ‘메기편’(鮪也)이라 하였다.

𩺱(74-48) : 音은 없고 訓은 ‘とど’이다. 魚類를 말 할때는 ‘성장한 송어’를 뜻하고, 動物을 말 할때는 ‘胡擯’으로도 쓰며 ‘바다사자’를 뜻한다. 地名漢字로 쓰여 岩手縣 宮古市 重茂에 ‘𩺱ヶ崎’(とどがさき)가 있다. 宮古市 重茂半島의 岬(岬)으로 本州의 最東端에 위치하여 바다에 면한 端崖로써, 𩺱山(とどやま)와 赤松을 배경으로 높이 40미터의 ‘𩺱ヶ崎’등대가 있다. 國內자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鰻(74-70) : 音은 없고 訓은 'ぼら'이다. 승어를 말하나 그 중에서도 '충분히 성장한 승어'를 뜻한다. 「新字典」에 日訓 'オホボア'로 '승어'라 하였다. 「大宇源」에 日字로서 '큰승어로(秀魚之大者)'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은 日字로서 '큰승어로'(鱈魚極成長大者)라 하였다.

鯪(74-71) : 音은 없고 訓은 'まで'이다. 砂地에 업드려 숨어있는 고기란 뜻으로 '가리맛'을 뜻한다. 一說에는 訓이 'こち'로 '양태'를 뜻한다고도 한다. 「新字典」은 日訓 'マテ, コチ'로 '未詳'이라 하였다. 「大宇源」에 日字로서 '가리맛복'(蚌屬)이라 하였으나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긴맛복'(蛭也), '양태복'(鮑也)이라 하였다.

鱒(74-81) : 音은 없고 訓은 'うぐい'로 '황어'를 뜻하며 '石斑魚'로도 쓴다. 또한 地名으로도 쓰여 '鱒川'은 北海島 渡島國의 地名이다. 「新字典」에는 日訓 'ウグヒ'로 '魴魚'라 하였고 「大宇源」 및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황어성'(黃魚 或稱 石斑魚)이라 하였다.

蛭(74-82) : 音은 없고 訓은 'すばしり'로 승어가 알에서 깨어서 부터 2-3寸이 될 때까지를 稱하는 말이다. 「新字典」에 日訓 'スバシリ'로 '모장이, 승어사기'라 하였다. 「大宇源」에 日字로서 '모장이주', '승어새끼주'(鱈魚)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승어새끼도, 모장이도'(鱈魚幼蟲之稱)라 하였다. 양자전의 音이 다른 것은 본래 音이 없는 字를 한국식으로 造音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것이다.

鱈(74-92) : 音은 없고 訓은 'すけそう'로 '명태'를 의미한다. 국내자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鯨(75-11) : 音은 없고 訓은 'むろあじ'로 '갈고등어'(室 鯨)를 뜻한다. 地名으로 쓰여 高知縣 幡多郡 大月町 柏島의 地先에 '鯨窟'(むるばえ)가 있다. '柏島'와 나란히 '幸島'가 있고 약간 떨어져서 있는 暗礁이름이다. 이 주변은 年間



‘鱉’(むろあじ)가 낚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어진 것이라고 한다. 국내자 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鱈(75-12) : 음은 없고訓은 ‘はや’로 ‘피라미’를 뜻하고 또는 ‘わかさぎ’로 ‘빙어’(若鯨)를 뜻하기도 한다. 「新字典」에 日訓 ‘ハエ, ハヤ’로 ‘날치, 날비리’라 하였다. 「大宇源」에 日字로서 ‘맹어약’(白魚)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은 日字로서 ‘피라미약’(鱈也)이라 하였다.

鱧(75-13) : 음은 없고訓은 ‘はらか’이다. 海魚의 일종으로 ‘민어’를 뜻한다. 또는 ‘송어’(鱒)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한다. 「新字典」에 日訓 ‘ハラカ’로 ‘송어, 赤眼魚’라 하였다. 「大宇源」에는 日字로서 ‘송어선’(鱧魚), ‘민어선’(腹赤)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은 日字로서 ‘송어선’(鱧)이라 하였다.

鱣(75-41) : 음은 없고訓은 ‘えそ’로 海魚의 일종인 ‘狗母魚’를 뜻한다. 「大宇源」에 日字로서 ‘공미리증’, ‘공치증’(針口魚)이라 하였으나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매통이증’, ‘메태비증’(鱣也, 狗母魚)이라 하였다.

鱣(75-46) : 음은 없고訓은 ‘はたはた’로 海魚의 일종인 ‘도로묵’을 뜻한다. 천둥소리에 무리를 짓는 고기라는 뜻으로 漁獲의 계절에 雷鳴이 잦아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新字典」에 ‘鱣同’이라 하였다. 「大宇源」에 日字로서 ‘도로묵은어뢰’(海魚, 雷魚)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도로묵뢰’(鱣也, 雷魚)라 하였다.

鱣(75-47) : 음은 없고訓은 ‘しいら’로 海魚의 일종인 ‘만새기’(勒魚)를 뜻한다. 「新字典」에 日訓 ‘シビラ’로 ‘勒魚’라 하였는데 「大宇源」에 日字로서 ‘바닷고기이름서’(勒魚)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은 日字로서 ‘늑어서’라 하였다.

鱣(75-48) :訓은 없고 음은 ‘キョウ’로 ‘鱣鱣’(あいきょう)은 ‘해복은 은어’를 뜻하며 ‘은어소금절이’를 뜻하기도 한다. ‘소금절이’는 연어의 장(腸)을 빼

내고 그 안을 은어의 알로 채워 소금에 절인 다음 5-6일 후에 淡水로 씻어 말린것으로 그대로 먹는다. 「新字典」에 '見 鱖'라 하였고 '鱖'는 '해묵은銀魚'라 하였다. 「大字典」에 日字로서 '해묵은 은어애'라 하였으나 한국식 造音이라면 '애'는 잘못된 것이다.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해묵은 은어향'( 鱖, 香魚之越年者)이라 하였다.

鱖(75-48) : 音은 'アイ'이고 訓은 'むつ'이다. 'むつ'는 첫째 '게르치'를 뜻하고 둘째로 '鱖' (あいきょう)는 '해묵은 은어'를 뜻한다. 또한 '은어의 소금 절이'를 뜻하기도 한다. 「新字典」에 日訓 'アイキヤウ'로 '해묵은銀魚'라 하였다. 「大字典」에 日字로서 '해묵은 은어애'( 鱖 )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도 '해묵은은어애'( 鱖, 香魚之越年者 又 鹽漬持子香魚)라 하였다.

鰻(75-52) : 音은 없고 訓은 'しいら' 또는 'しびら'로 상기 '勒魚'의 異名이다. 국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鶺鴒(75-80) : 音은 없고 訓은 'とき'이다. 첫째는 白鶺鴒를 닮은 涉水鳥로 '따오기'(鶺鴒)를 뜻한다. 둘째는 따오기 깃안의 색을 나타낸다. 약간 灰色을 띤 淡桃色으로 '연분홍'을 뜻한다. 「新字典」에 日訓 'トキ, ツキ'로 '따오기, 朱鶺'라 하였고 「大字典」 및 「漢韓大字典」에도 日字로서 '따오기년'(朱鶺)이라 하였다.

鶺鴒(75-87) : 音은 없고 訓은 'かけす'이다. 새이름으로 '어치'를 뜻한다. 약간 작고 깃털(羽毛)에 반점이 있으며 날개는 紫黑色을 띠고 毛冠이 있다. 성질이 獷猛하여 작은 새들을 잡아 먹는다. 못새의 울음소리 또는 사람말을 흉내낸다고 하며 다른새의 소리를 判別하는 새라는 뜻으로 造字된 것이라 한다. 「新字典」에 日訓 'カシトリ, カケス'로 '鶺鴒'라 하였다. 「大字典」에 日字로서 '새매판'(雀鶺)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가계수리판'(燕雀目鳥)라 하였다.

鶺鴒(76-07) : 音은 없고 訓은 'いすか'이다. 작은 새의 이름으로 '갓새'를 뜻한

다. 참새보다 약간 크고 머리 및 등이 赤青色을 띠고, 배 및 가슴은 紫赤色으로 되어 있다. 부리는 상하가 어긋나 교차한 것이 특징이다. 「大字源」은 日字로서 '때까치이'(練鵲)라 하였으나 「漢韓大字典」에 '갯새이'(燕雀目雀科鳥)라 하였다.

鶉(76-08) : 音은 없고 訓은 'きくいただき'이다. 작은 새의 이름으로 '상모솔새'(菊戴)를 뜻한다. 형상은 동박새를 닮아서 작고, 등은 綠色, 배는 灰色으로 머리에는 菊花形을 한 黃花冠을 하고 있으며 '戴勝鳥'라고 한다. 「大字源」에 日字로서 '오디새종'(戴勝別名, 戴鶉)이라 하였으나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상모솔새종'(燕雀目之一種)이라 하였다.

#### IV. 結 言

이상으로 日本工業規格 JIS X 0212-1990 「情報交換用漢字符號-補助漢字」에 포함되어 있는 日本字에 대해서 考察하였다. 그 결과 「情報交換用漢字符號-補助漢字」에 포함되어있는 日本字는 總 69 字였으며 이들중에는 收錄字數가 세계 제일이라는 諸橋轍次의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있지 않은 字가 29字였다. 그리고 國內 字典類에 수록되어있는 字는 總 30 字이고 國內에서 발행된 어떤 字典에도 수록되어있지 않은 字가 39字였다. 國內자전류로는 주로 「新字典」과 「大字原」 그리고 「漢韓大字典」을 주로 참고하였다. 이중 「新字典」에 수록되어있는 字는 24字였으나 日訓과 뜻만을 수록하였고 「大字原」 및 「漢韓大字典」에 共히 수록되어있는 字는 28字였으며 「漢韓大字典」에만 수록되어있는 字가 2字였다. 이들은 모두 '뜻'과 아울러 '音'도 수록하고 있으나 이는 日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그 대부분이 어디까지나 類推에 의한 推定音일 뿐이다. 따라서 兩者의 音이 간혹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이와같은 이유 때문이다.

日本字의 特性으로는 定義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래의 漢字에는 없는 物名이나 概念을 漢字로 표시하기 위해 造字된 것으로 魚類와 鳥類名 그리고 나

무이름등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외에도 日本에서만 사용하는 音(國音字) 및 본래는 漢字였으나 日本에서만 특별한 意味로 사용되는 字(國訓字)등이 있으나 그 양의 방대함으로 本考에서는 제외하였다.

## 參 考 文 獻

- 廣辭林. 三省堂編輯局編. 第5版. 東京 : 三省堂, 1980.
- 국어대사전. 이희승 편저. 서울 : 민중서림, 1982
- 國語辭典. 西尾實, 岩淵悅太郎, 水谷靜夫編. 第4版. 東京 : 岩波書院, 1986
- 國字の字典. 菅原義三 編. 東京 : 東京堂, 平成 2年(1990).
- 大字源. 張三植 著. 서울 : 三省出版社, 1990.
- 大字典. 上田万年 等著. 東京 : 講談社, 1965.
- 大漢和辭典. 諸橋轍次 著. 修訂版. 東京 : 大修館書店, 昭和59年(1984).
- 새우리말큰사전. 申琦澈, 申瑢澈 編著. 增補版. 서울 : 三省出版社, 1980.
- 옛센스日韓辭典. 安田 吉實, 孫洛範 共編. 서울 : 民衆書林, 1987.
- 日韓大辭典. 柳呈 監修. 서울 : 韓英出版社, 1978.
- 字典釋要. 池錫永. [漢陽] : 匯東書館, 1909. 1976年 亞細亞文化社 影印.
- 最新JIS漢字辭典. 田嶋一夫 監修. 東京 : 講談社, 1990
- 漢韓大字典. 金赫濟, 金星元 編著 ; 車柱環, 張基權, 金學柱 監修. 서울 : 明文堂, 1984.
- 漢韓大字典. 民衆書館 編輯局 ; 李相殷 監修. 서울 : 民衆書林, 1966.
- 漢和辭典. 赤塚 忠, 阿部吉雄 編. 改訂新版. 東京 : 旺文社, 1989.
- 日本規格協會. 情報交換用漢字符號(JIS X 0208-1990). 東京: 日本規格協會,  
平成 2年(1990).
- \_\_\_\_\_ . 情報交換用漢字符號(JIS X 0212-1990). 東京: 日本規格協會,  
平成 2年(1990)
- 李春澤. Computer코드화를 위한 韓國工業規格과 日本工業規格의 基本漢字에

대한 比較分析, 清浪鄭필模博士華甲紀念論文集. 서울 : 同論文集編纂委員會, 1990.

李春澤. 韓日國家規格 漢字코드의 統合研究. 서울 : 중앙대학교대학원, 1991

李春澤. 日本工業規格 「情報交換用漢字符號」에 포함된 日本漢字에 대한 연구, 圖書館學. 서울 : 韓國文獻情報學會, 1992.

## A Study on the Chinese Characters Originated in Japanes Industrial Standard(JIS X 0212)

by Lee Choon Tack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s in JIS X 0212-1990(Code of the Supplementary Japanese Graphic Character Set for Information Interchange). As a results of detailed investigation, it is found that the number of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s in supplementary set reaches to 69 characters. Among them, 29 characters are not listed even in the best known chinese character dictionary 「大漢和辭典」. 30 characters are found in the chinese character dictionaries published in Korea, while 39 characters are not found in any of those dictionaries.

The distintive characteristic of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s is that those chinese characters are made in order to name the things, such as fishes, birds, trees, which do not have Chinese-made Chinese Characters.